

엠텍비전, 세계 첫 실시간 압축 기술 적용 500만 화소급 CSP 개발

엠텍비전(대표이사 이성민 www.mtekvision.com)은 세계 최초로 실시간 영상 압축 기술을 적용한 500만 화소급 CSP(카메라 시그널 프로세서) 'MV9317'을 개발했다. 이 칩은 실시간 영상 압축 엔진인 'JPEG 인코더'를 탑재함으로써, 실시간 JPEG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MV9317'은 엠텍비전이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CCP(카메라 컨트롤 프로세서)와 CSP를 접목한 화질 개선 칩으로, 보급형부터 고급형 카메라폰까지 고화질 카메라 기능 구현을 용이하게 한다.

아이앤씨마이크로시스템, 어댑터용 VoIP칩 출시

아이앤씨마이크로시스템(대표이사 최의선 www.inc.co.kr)은 아날로그 전화기를 인터넷전화(VoIP)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어댑터용 칩 '툴립AC494 AT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칩은 이스라엘 오디오코즈의 제품으로, 소프트웨어 업체인 정고(Jungo), 음성 집적회로 업체인 레저리티(Legerity)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됐다. 이 제품은 VoIP 전화기나 아날로그전화 어댑터, 광대역 접속 장치(xDSL, 케이블 등) 등에 적합하다.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스, 지상파DMB 튜너모듈을 대체할 수 있는 통합칩 개발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스(대표이사 고범규 www.integrant.com)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고주파(RF)칩과 베이스밴드칩·수동소자를 통합, 튜너 모듈을 대체할 수 있는 칩 'MTV311'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칩은 튜너 칩, 베이스밴드 칩과 인덕터, 캐패시터 등의 수동소자를 모두 포함하고도 10mm×10mm×1.3mm 패키지로 구현, 현 튜너모듈을 사용했을 때보다 크기를 5분의 1로 줄였다. 이 제품은 수신감도를 결정하는 RF칩 부문은 인티그런트가, 신호를 복조하는 베이스밴드 칩은 텔레칩스가 개발해 통합한 칩으로, 인티그런트의 SiP (System in Package) 기술을 이용해 한 개의 패키지로 구현했다.

넥서스칩스, 휴대폰용 3D 그래픽 가속칩 양산

넥서스칩스(대표이사 김학근 www.nexuschips.com)는 기존 제품보다 5배 빠른 휴대폰용 3차원 그래픽 가속 칩 'Gi펄프 NX1005'를 양산한다고 밝혔다. 이 칩을 장착하면 휴대폰에서도 안정적인 3차원 영상을 즐길 수 있다. 3메가 급 카메라를 지원하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이다. 이 제품은 모바일 기기의 그래픽 가속 표준인 '오픈GL ES1.1'을 따르고 있어, 휴대폰 뿐 아니라 휴대형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등 각종 모바일기기에 사용할 수 있다. 넥서스칩스에서는 3D 가속 칩을 이용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래시, 3차원 유저인터페이스, 3D 게임, 아바타 등의 콘텐츠 업체와 협력, 고객의 요구에 따라 3D 솔루션과 콘텐츠도 패키지로 제공한다.

다윈텍, 비디오프로세서 개발 착수

다윈텍(대표이사 김광식 www.dawintech.com)은 LCD TV용 타임컨트롤러 시장 진출을 위해 비디오프로세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디오 프로세서는 기존 타임컨트롤러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메모리를 포함해 응답속도를 높이고 화질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일본 자인과 르네사스 등이 국내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LCD 타임컨트롤러 전체 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윈텍은 이 제품을 올해 내 개발을 마치고 내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 DMB·와이브로 멀티미디어 칩으로 시장 주도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서승모 www.cnstec.com)는 곧 휴대폰용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멀티미디어 칩을 내놓고 이어 2006년 5월에는 와이브로용 멀티미디어 칩 개발을 완료, 차세대 서비스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휴대폰에서 카메라와 캠코더, DMB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칩(모델명 트라이톤)을 개발 중으로 곧 출시한다. 